

청화 스님 모독한 김도읍 의원 사퇴하라 실천승가회, 13일 성명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청화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고문)에 대해 '전향하지 않은 간첩·빨치산 묘역을 조성했다'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불의를 일으키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11월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중 청화 스님에 대해 "경기 파주 보광사에 전향하지 않은 간첩, 빨치산 묘역을 조성한 분이 어떻게 주요 공안기관에 대한 특검을 주장할 수 있는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등이 국회에 혁명의 교두보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실천승가회는 김도읍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와 함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청화 스님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극한 분노와 함께 김도읍 의원이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혜숙 기자

선학원 이어 대각회까지... 법인법 암초 만나다

대각회 분원장 회의서 "법인법 반대" 결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조계종 법인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선학원에 이어 대각회도 법인법 수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타종단 사찰이 포함돼 있는 선학원과는 달리 대각회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조계종이며 적지 않은 스님들이 중진으로서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대각회의 반대는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대각회(이사장 도읍)는 11월 13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열린 '분원장 중진스님 비상대책회의'에서 "조계종과의 법인법 문제와 관련해 대각회 재단의 고유권한을 지켜야 한다"는 뜻을 같이한다"며 △조계종이 제정한 '법인법'을 반대한다 △조계종은 대각회와 2000년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라 △분원장 회의 결의내용을 대각회 이사회는 적극 수용하라고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시행한 서면 찬반 질의에서도 총 179개 사찰 중 146개 사찰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각회 스님들의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졌다. 대각회 사찰사무원

영원위원장 자우 스님은 "우리들의 의사는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재정·행정권을 포기하고 들어오는 것인데 이는 을 사보호조약과 다를 바 없다"며 "특히 인사권이 지금과 천양지차다. 교부금 또한 지금과는 달리 종단 측에서 올리라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179곳 사찰 중 146곳 반대

일부 분원장 독립운영 주장 선학원과 협의 '평행선'

기존 법인 내년 6월까지 등록 '무조건 반대는 수용 어려워'

부산 광명사 도신 스님은 "오�히려 조계종은 왜 재가자, 또는 조계종 스님들이 대각회나 선학원, 심지어 타종단에 사찰을 등록하는지 이유를 되짚어야 한다"며 "종단에 등록시 찬성주 권안이 축소되고 심지어 사찰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조계종 대각회 분원장 스님들은 11월 13일 법안정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법인법 반대를 결의했다.

법인법에 대한 성토는 재단의 독립 운영으로까지 확대됐다. 부산 지역의 한 스님은 "대각회 이사회의 3분의 1을 조계종단 측 이사로 채우라는 것은 결국 재단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각회 내에서 강원·선방을 다 만들 수 있다. 종단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학교 또한 보낼 수 있다"고 독립운영을 주장했다.

도읍 스님은 "법인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종단이 합의 시까지 예외조항을 두거나 연기해줄 것"이라며 "분원장 비상대책회의의 결의 내용을 토대로 이사회를 거쳐 대각회 전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각회의 '법인법 수용 불가'의 파장이 주목되는 것은 법인법과 관련해 선학원과의 갈등 역시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신종일·노덕현 기자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11일 관음사 30차 회의서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차기 회장에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1일 제주 관음사에서 열린 30차 회의에서 차기 회장에 돈관 스님(은해사 주지)을 선출하고, 부회장에 우송 스님(신흥사 주지)과 진우 스님(백양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또 총무간사는 성호 스님(관음사 주지), 재무간사는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이 선임됐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교구본사주지회의'와는 다른 친목단체이다. 교구본사주지협은 이날 회의에서 차기 회장단 선출과 관련해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25개 교구본사주지 스님 가운데 18명이 참석했다. 회장단 임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신종일 기자

불교문화 우수성 알린 대장경축전

10일 폐막식...관람객 200만 명·경제효과 4천억 원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경남 지역을 넘어 '국민축제'로 자리잡았다.

경상남도와 합천군, 해인사 공동 주최로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린 대장경축전은 당초 목표로 세웠던 목표관람객 160만 명을 훨씬 초과해 200만 명이상이 대회를 찾았다.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외국인 관람객도 5만 명이상이 다녀갔다.

무엇보다 대장경축전은 경상남도와 합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4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축전장과 해인사 일대의 숙박업소, 음식점과 인접 지역인 경북 고령군과 성주군도 때 아닌 특수를 맞기도 했다.

축전 관계자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보다는 대장경축전을 통해 얻어지는 경상남도나 합천군의 브랜드 가치 상승, 합천군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축적 등 보이지 않는 비경제적인 효과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대장경축전은 또 학생들의 역사, 체험 학습을 위한 교육의 장과 학생들의 가을 소풍 장소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조직위는 가족단위 방문이나 개별 방문 등을 포함한 학생 관람객 수가 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생들 체험학습장으로 각광

외국인 관광객도 5만명 찾아

누구나 즐기는 국민축제 확인

학생들과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써 손색이 없고 대장경빛소리관에서 펼쳐지는 5D원형입체영상. 대장경의 역사와 의미 등을 현대적인 영상기술을 활용하여 조종고 학생들에 친숙하게 꾸며진 콘텐츠와 인경, 판각 등의 19개의 체험프



대장경빛소리관에 물린 인파. 5D원형입체영상을 통해서 대장경의 역사와 의미를 살필 수 있었다.

로그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열악한 도로 사정, 숙박시설·편의시설 부족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축전장에서부터 해인사 입구까지 6km 구간의 왕복 2차선과 주차시설을 감안한 축전장 부근의 주차시설 확충과 승용 차량 진입을 제한, 셔틀버스 운행 확대도 교통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숙박시

설과 편의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상규 영산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대장경축전은 대장경이라는 문화원형을 가지고 축전을 펼친다는 측면에서 특색있는 축제"라며 "앞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호텔 등 숙박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motb79@hyunbul.com

제주 보현사 매각 사태 해결 기미 보이냐 관음사 12일 승인 취소 요청

제주 관음사(주지 성호)가 11월 12일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에 보현사 이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회 정기회는 종책질에서 제주 관음사 말사 보현사의 토지매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재무부장 보경 스님은 장명 스님의 보현사 매각 관련 질의에 대해 "보현사 문제는 화쟁위원회가 참여하는 3자가 합의하지 않을 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입장"이라며 "오늘 오후 관음사에서 보현사 이전 승인 취소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음사 교구 일부 재적승들이 제주 보현사 매각 추진과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기도 나섰다.

세동·법음·승언스님 등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진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우리는 향후 진행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들은 이날 '의견'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화쟁위원회에 전달했다.

신종일 기자

용암사 오백나한 봉안 원만 회향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시방삼세에 두루 고합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용암사 도량에 피는 꽃, 한번 피면 지지않는 우담바라와 같이 사바세계에 두루하여 어두운 마음을 빛나게 하소서... 나투소서! 나투소서! 오백성중님이시여!

죽비소리 한번울려 사마외도 잠이들고 죽비소리 두번울려 모든 중생 눈을 뜨네, 부처님의 높은 법문 그윽히 메아리치는 용암사 죽비소리 오늘도 멈출 수 없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대다라니 108편. 독송 천일기도 접수합니다

오백나한도량 용마산 용암사

주지 관 오

신도회장 정진심 후원회장 법인월

수선회장 대법장 합장



서울 광진구 중곡4동 176-42 ☎ 02)446-1571